
Global Report

지속가능 개발 보고서 2016

1. 서론
2. 세부 목표들에 대한 주요 내용
3. 결론

1. 개요

본 착수보고서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에서 2030년까지의 총괄적인 여정의 시발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에 대해 최초로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 세계적 지수(indicator) 체계(framework)에서 몇몇 특정한 지수들을 선정하여 분석하는데, 이 지수들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과 차이점(gap)들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 SDG 지수들의 목록은 2016년 3월에 개최된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사용방법 및 데이터 사용성 개선을 위한 세부조정과 개선작업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여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여정을 계획하고, 여정의 필요한 지점에 주요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하고 시기적절한 신뢰성 있는 개별 데이터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 지수들에 필요한 데이터의 필요조건들은 SDG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전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각 국가들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통계자료를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인류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계획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의 공통의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대단히 핵심적인 단계이다.

2. 세부 목표들에 대한 주요 내용

2.1 목표 1 :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의 종식

첫 번째 목표는 향후 15년 동안 극심한 빈곤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빈곤에 대한 종식을 규정한다. 극빈층과 최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은 기본적 생활수준과 사회적 안전복지를 누려야만 한다.

- 전 세계 인구 중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2002년 ~ 2012년 기간 동안 26%에서 13%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중 8명당 1명이 극심한 빈곤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남쪽지역 국가들에 이러한 빈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곳에서 거주하는 인구 중 40%가 2012년 기준 하루 1.9\$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다.
- 2015년 기준 전 세계 근로자 및 그 가족인구의 10%가 하루 1인당 생활비로 1.9\$ 미만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2000년 기준 28%에서 감소된 수치이다.
-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층들은 빈곤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모든 청년 근로자들 중 16%는 2015년 기준으로 빈곤층에 해당되며, 이는 장년층 근로자들의 빈곤층 비율 9%와 대비된다.
- 저소득 국가에서는 약 5명 중 1명의 국민만이 사회 안전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데, 이는 중상위소득 국가의 3명 중 2명이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2.2 목표 2 :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달성/영양섭취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촉진

2번째 목표는 2030년 까지 기아 및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시키는 것과 지속가능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인류는 충분한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 전제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광범위한 촉진, 농업생산성의 배가(doubling), 투자증대 및 식량시장에

대한 적절한 기능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 전 세계적으로 기아로 인해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은 2000년~2002년 기간의 15%에서 2014년~2016년기간에 11%로 감소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적절한 식품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 성인의 절반 이상이 2015년 기준으로 중증(moderate)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전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 심각한 식량 불안전성을 겪고 있는 비율은 이 지역 성인의 25%에 달한다.
- 5세 미만의 어린이 4명 중 1명은 2014년 기준으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는 1,586억 명에 해당된다.
-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중 과체중에 해당되는 비율은 2000년~2014년 기간 동안 거의 20% 가까이 증가하였다. 대략 4,100만 명에 해당하는 이 연령대의 전 세계 어린이들이 2014년 기준으로 과체중 상태로 이들의 절반이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다.

2.3 목표 3 :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삶과 복지의 촉진

3번째 목표는 출산보건/모자건강 개선, 주요 전염병에 의한 유행병 종식, 비전염병 및 환경적 질병 감소, 보편적 보건체계 확립,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값싸고, 효과적인 백신 및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전 연령대에서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 1990~2015년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산모 사망율은 44% 감소되었고, 5세 이하 영아 사망률도 절반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2015년 기준으로 590만 명의 5세 이하 영아가 대부분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다.
- 후천적 면역결핍증(HIV), 말라리아 및 결핵 등의 발병은 2000~2015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210만 명의 사람들이 후천적 면역결핍증에 새로 감염되었고, 약 2.14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략 절반이상이 말라리아의 감염위험에 처해 있으며,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이러한 말라리아 감염의 89%를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다.
-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가임기 여성(15세~49세)의 4명 중 3명은 현대적 피임법을 사용하여 가족계획을 시행하였다.
- 2012년 기준 비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70세 이하 사망자의 대략 2/3은 심혈관 질병 또는 암이다.

2.4 목표 4 : 포괄적이고 균등한 품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교육을 장려한다.

4번째 목표는 기초적이면서 고 수준의 기술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균등한 접근기회 즉, 기술적, 직업적 교육 및 훈련, 평생교육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가치, 지식들에 대한 습득을 목표로 한다.

- 2013년 기준으로 5,900만 명의 초등교육 대상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 2008~2012년 사이에 63개 저, 중소득 국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극 빈곤층에 해당하는 20% 가구의 어린이들은 부유한 가구의 어린이들 보다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4배가 높았다.
- 선진국 38개국에 대한 자료에서는 대부분 청년계층의 75% 이상이 적어도 글을 읽을 줄 알거나, 수학

학습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흥 개발국 22개국의 자료에서는 단지 5개국에서만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 2013년 기준으로 아직도 7.59억 명의 성인(15세 이상)들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이며, 이들 중 2/3은 여성이다.

2.5 목표 5 : 양성 평등의 달성 및 모든 성인여성들 및 소녀들에 대한 권리향상 지원

5번째 목표는 성인여성과 소녀들에게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풍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이들의 성적 그리고 출산건강 및 출산권리에 대한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무보수 노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정을 받도록 보장하고 이들이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이 없도록 하며, 공공활동, 정치 및 경제활동에 남성과 더불어 동등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 세계적으로 20세~24세의 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1990년의 32%에서 2015년 즈음에는 26%로 감소하였다.
- 여성할례(genital mutilation)풍습이 집중되어 있는 30여 개국에서는 15세~19세 여성의 1/3이 이러한 의식을 받았다.
- 2000년~2014년 기간 동안 59개국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은 매일 자신의 일과시간 중 19%를 무보수 노동에 할애한다고 하며, 8%에 불과한 남성과 비교된다.
-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의 비율은 2016년에 23%로 상승하여 지난 10년 동안 6% 상승하였다.

2.6 목표 6 : 전 세계인에 대한 공중위생 보장과 수자원 사용성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보장

6번째 목표는 식음료, 공중위생(Sanitation) 및 보건위생(Hygiene)에 더 나아가서 수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및 수질을 관할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구 및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자원 개선 및 보건위생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조와 지원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 2015년 기준으로 66억 명 또는 전 인류의 91%가 개선된 음용(drinking) 수자원을 공급받고 있어서 2000년 기준 82%에 비교하여 향상되었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약 6.63억 명의 사람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식수원 또는 하천수를 공급받고 있다.
- 2000~2015년 기간 동안 개선된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세계인구의 비율은 59%에서 68%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4억 명은 아직도 이러한 혜택에서 멀어져 있다. 이들 중 9.46억 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위생시설이 없어 지속적으로 감염에 노출된 상태로 살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으로 20억 명이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합 수자원관리계획(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2.7 목표 7 : 모든 인류에게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7번째 목표는 광범위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고 재활용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있는데, 여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공조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술 및 기반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 전 세계 인구 중 전기를 공급받는 인구비율은 2000년도에 79%에서 2015년에 85%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억 명의 사람들이 2012년 기준으로 이러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인구의 40% 이상인 30억명의 사람들이 음식조리를 위한 연료로서 오염되고 비 위생적인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 2010~2014년 기간 동안 현대적 재생에너지의 활용은 급격하게 증대되어 연간 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 세계 에너지 집중도(intensity)는 2000년~2014년 기간 동안 매년 1.3%씩 개선되어 왔다. 2010년과 2012년 사이 약 68%의 에너지 저축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신흥개발국에 의해서 확보되었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2.8 목표 8 :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계속적,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전 세계의 복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여덟 번째 목표는 아동 노동철폐,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들을 제거하면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의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 최저개발국(LDCs)들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2005~2009년 기간 동안 4.7%에서 2010년~2014년 기간 동안 2.6%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연간 7%의 목표 성장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 2005~2015년 기간 동안 신흥개발국의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동안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아직도 어떤 신흥국들의 수치보다도 2배 이상을 나타내었고 사하라 이남 지역 및 남아시아 국가들 보다는 20배 이상의 큰 수치를 보였다.
-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의 실업률은 6.7% 이고 남성 실업률은 5.8%를 기록하였다. 성 불평등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여성 실업률은 남성의 2배 가 넘었다.
- 4년 동안 은행계좌를 가진 성인의 비율은 20%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20억 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요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9 목표 9 : 튼튼한(resilient) 기반시설의 건립,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한다.

아홉 번째 목표는 기반시설 개발, 산업화 및 혁신을 장려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목표는 향상된 국내/국제적 재무환경, 기술집약적 및 지술지원 연구 및 혁신 그리고 향상된 정보의 획득 및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다.

-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제조 부가가치는 최저개발국(LDCs)의 연간 100\$ 미만 대비 선진국은 5,000\$ 이다.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청정연료 및 관련기술은 2000~2013년 기간 동안 단위 부가가치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3% 감소시켰다.
- 2013년의 구매력 평가기준(ppp) 에 의한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1.7조 달러로서, 2000년의 7,320억 달러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4%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였으며, 반면 최빈국들(LDCs)과 내륙 신흥개발국들(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은 평균적으로 0.3%에 불과하였다.
- 2015년 기준으로 3G 이동통신기술은 도시인구의 89%에 서비스되고 있으나, 지방주민들에게는 29%만이 서비스되고 있다.

2.10 목표 10 : 국내 및 국가 간의 불균형 저감

열 번째 목표는 한 국가 내에서는 물론 국가 간에 있어서 종교, 지회, 윤리, 계층, 종족, 장애, 연령 및 성별에 의한 수입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목표는 또한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정기적인 이주의 보장과 전 세계적 의사결정과 개발지원에 있어서 신흥개발국의 의사(representation) 연관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07~2012년간의 관련 자료들이 존재하는 94개국 중 56개국에서 이들 국가의 국민총 40%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1인당 소득이 해당국가의 전체 국민 평균치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 최빈국들과 신흥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면세로 수입되는 재화의 비율이 2000년의 70%에서 84%로, 65%에서 79%로 각각 증가하였다.
- 국제 송금으로 인한 비용은 2015년 총 송금액의 7.5%로서 목표치 3%의 2배가 넘었다.

2.11 목표 11 : 도시 및 거주지를 비차별적이고, 안전하며, 튼튼하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든다.

열한 번째 목표는 도시를 포함한 여러 인류 거주지들을 혁신을 조장하고 고용을 촉진하면서 개인의 안전과 지역융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및 계획하는데 중점을 둔다.

-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도시 거주자들 중 30%인 8.8억 명이 도심 빈민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에 이 수치는 39%였다.
- 전 세계의 많은 발전하는 도시들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선 외곽으로 인구들이 이동하고 있다.
-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도시 거주민들의 절반가량이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치의 2.5배 이상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 2015년 기준으로 142개 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 중이고, 이들 국가들 중 82개국은 이미 시행단계에 있으며, 23개 국가들은 이미 모니터링 및 평가단계에 진입하였다.

2.12 목표 12 : 지속가능한 생산 형태(pattern) 및 소비의 보장

12번째의 목표는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협의 및 특정정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다.

- 2010년 기준으로 선진국들의 단위 총 생산액 당 자원발자국(사용된 1차 원료량)은 23.6kg 인 반면

신흥개발국은 14.5kg 이었다.

- 같은 해 기준으로 선진국에서의 1인당 국내 자원소비량은 신흥개발국에 비해 72% 높았다.
- 모든 UN회원국들은 일부인 6개국을 제외하고, 위험폐기물 또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협의회(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에 가입되어 있다.

2.13 목표 13 : 기후변화 및 이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조치의 수행

기후변화는 개발에 대한 가장 큰 단일 위험요소이며, 이로 인한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영향은 가장 취약하고 빈곤한 국가들에 불균등하게 많은 부담이 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환경과 연관된 재해 및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 2016년 4월 175개 회원국들은 역사적인 파리 협약에 서명하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지구의 온도를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야심찬 환경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 2000~2013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서 매년 83,000 명이 사망하고 2.11억 명이 영향을 받았다.
- 2015년 기준으로 83개국만이 자연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나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4 목표 14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하고 보수적 이용

이 목표는 바다 및 해양 생태계의 보수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여 최빈국들 및 신흥개발국들의 도서지방에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으로 경제적 편익을 증대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해양자원은 2010년 기준 전 세계인구의 37%에 해당하는 해안지방에 거주하는 인구에 특히 중요하다.
- 전 세계 해양 어족자원(fish stock)의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비율은 1974년의 90%에서 2013년 69%로 악화되었다.
- 2014년 기준으로 한 국가의 영해(해안선에서 200 마일 이내)의 해양환경 중 8.4% 만이 보호받고 있다. 2000~2016년 까지 주요 해양생물 다양성 지역 중 완전한 보호를 받는 지역은 15%에서 19%로 증가하였다.
- 해안 부영양화(eutrophication)로 가장 위협받고 있는 5개의 대규모 지역은 벵갈만, 동중국해, 멕시코 만, 북브라질 대륙붕(Shelf) 및 남중국해인데 이 지역은 2010년 기준 7.81억 명의 해안 거주민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다.

2.15 목표 15 : 지상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활용 촉진 및 보호 재생,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및 토지 황폐화의 정리 및 복원 그리고 생태다양성 상실의 중단

열다섯 번째 목표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황폐화된 토지의 복원, 성공적인 사막화 방지, 황폐화된 서식지의 감소 및 생태다양성 상실의 종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때 산림과 다른 생태환경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대상들을 위한 생태환경이 보호되고, 생태다양성이 번성하게 되며 이러한 자연자원의 편익을 다음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게 된다.

- 전 세계의 순수 산림지역 유실이 1990년대의 연간 730만 헥타아르에서 2010~2015 기간 동안 330

만 헥타아르로 감소되었다.

- 전 세계의 지표면 비율, 내륙 청정수 지역비율 및 주요 산림 생태다양성 등의 보호지역은 2000~2016년 기간 동안 각각 16.5% → 19.3%, 13.8% → 16.6% 및 18.1% → 20.1% 로 증가하였다.
- 2015년 에는 23,000 종의 식물, 버섯 및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 역사상 다른 시기에 비해 인류의 행위로 인한 생물 멸종비율은 약 3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 1990년부터 7,000종의 동식물이 불법거래 되어 온 것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120개국이 영향을 받았다.

2.16 목표 15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결같고 평화적인 지역사회의 촉진, 모든 이들에게

정의로운 사회 및 모든 계층에게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차별적인 공공기관의 제공

열여섯 번째 목표는 인권에 대한 존중, 준법정신, 모든 계층에 대한 선의의 행정,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 기반한 비차별적이고 평화적인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돌발적인 폭력과 군사적 충돌 및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미약한 행정서비스, 정의, 정보 및 기타 기본적인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2008~2014년 기간 동안 신흥개발국에서의 살인률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2011년 가장 정점에 달했을 시기,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의 34%는 어린이들로서 2004년의 13%에서 급격히 상승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2012~2014년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30%는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 전 세계의 5세 이하 어린이 중 4명 중 1명 비율로 출생이 기록되지 않았다. 최빈국들 중에는 2명 중 1명의 어린이가 5세 이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2.17 목표 17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의 시행 및 부활 수단의 강화

2030 계획에 대한 의제(Agenda)는 정부, 시민단체, 기업, UN 및 기타 단체들로부터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는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흥개발국, 특히 최빈국, 내륙의 신흥개발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대한 개발지원의 증대는 전 인류의 균등한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 2015년의 공식적 개발지원 자금은 총 1,316억 달러로서 2014년 수치에 비해 6.9% 상승하였으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 채무 상환비율(DSR)은 2000년~2012년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했는데, 2000년 11.7%에서 2012년 2.7% 이하로 감소되었다.
- 2015년 고정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보급률은 선진국에서 29%에 다다랐으나, 신흥개발국에서는 7.1%에 불과하였고, 최빈국에서는 0.5%에 그쳤다.
- 비록 최빈국들의 전체 수출금액 중 상품수출 비중이 2000년에 비해 2014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이들 규모는 2014년 기준 전 세계 수출금액 중 1.1%에 불과한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 전 세계 국가들 중 90% 와 신흥개발국 중 88%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 자료로서 인구 및 가구조사를 2006~2015년도에 시행하였다.

3. 결론 :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Agenda)를 시행하면서, 회원국들은 개개인의 존엄성과 해당 의제의 목적과 목표는 모든 국가, 모든 국민 및 모든 사회구성원에서 만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목표는 가장 뒤처져 있는 대상을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수사적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를 얻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인데, 개별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내용은 개발에 의한 편익이 결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 2015년 기준 청년 실업률(15세~24세)은 전 세계적으로 15%로서 성인실업률(4.6%)의 3배가 넘는다.
- 2015년 기준 전 세계에서 상위 20%의 가구에서 출산 시 숙련된 보건 전문가가 참여할 가능성은 하위 20% 가구에서의 출산 시와 비교해 2배가 넘는다.(89% 대비 43%)
-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부유한 가정의 동년배 어린이들보다 발육부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 도심지 거주지의 약 80%는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골지역은 33%에 불과하다.
- 최빈국들, 내륙지방 신흥개발국 및 소규모 도서개발국 등은 모두 영양실조의 유행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2014~2016년 기간 동안 전체 신흥개발국 보다도 각각 13.8%, 9.8%, 5.1% 높은 수치이다.
-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은 “2030 의제”의 지배적 개념이다. 하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인구의 특정계층을 다루는 데이터나 인자들이 없이는 지속가능 개발목표 결의안의 완전한 시행은 불가능하다.
- 데이터 원천(source)의 통합과정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사용성 및 적용성 개선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세계 통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현대화 하여 현행추세에 부합하고 우리의 현재 뿐 만 아니라 후세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